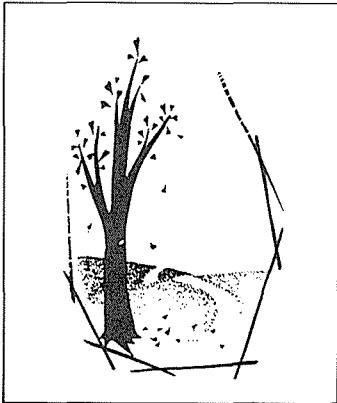


찬란한 5월, 「가정의 달」



윤 병 로
〈문학평론가·성균관대 교수〉

5월은 참으로 연중 가장 화창하고 축복 받은 계절이다. 30년대의 낭만적 서정시인 金永郎은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란 시에서 5월을 극구 찬미하고 있지 않는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이즉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5월 어느날 그 하루 무덤든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빨쳐 오르던 내보람 서운케 문혀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가고 말아
3백 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이즉 기둘리고 있을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 시에서 강하게 드러내는 주제는 〈모란이 피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림〉이라 생각된다. 즉 5월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시에서는 「모란」이 중요한 핵심적 이미 지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모란의 開花는 곧 나(시인)의 봄을 상징하며 모란이 지면 아직도 봄의 계절이 남아 있고 봄에 피는 다른 꽃들이 남아 있어도 이 시인에게는 이미 봄이 다가고 만 것이다. 모란이 지면 봄만 다 간 것이 아니라 〈빨쳐오르는 내 보람〉도 서운하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찬란한 슬픔의 정감이 배어 흐르는 섬세한 서정시로 널리 애송된다.

이렇게 찬란한 5월은 우리에게 봄의 중착점이요, 여름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올해 달력을 훑어 보면 5일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석가탄신일 등 축복받은 기념일들이 연속되어 명실 공히 「가정의 달」이라 일컫기에 충분한 달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은 어찌된 일인지 옛날보다 엄청히 잘 살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가중되고 있지 않는가. 지난 연말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땅에서 지금껏 듣지도 못했던 이른바「폭력·범죄와 전쟁」이 선포되더니 지난달에는 「마약과 전쟁」이 벌어졌다.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음란, 마약 복용 등 각종 범죄가 날로 극악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정부가 가공할 전쟁선포까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위기 현실을 통탄한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립니다>란 「서울찬가」를 자랑스럽게 부르며 앞으로 더 풍요하게 잘 살게 되리라는 우리의 부푼 꿈이 어이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말인가.

세월의 無常이라고나 할까. 나는 서부극이나 갱영화를 보고 저런 살벌한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며, 언젠가 뉴욕의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할렘街를 돌아보고 전을했던 일이 결코 먼 나라 얘기 같지 않게 다가온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동방의 등불>이니 <동방의 禮儀之國>이란 이미지는 이제 온데 간데 없고 오욕의 불륜이 횡행하고 섬짓한 테러가 자행되어 우리 사회를 불안지대로 몰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을 흔히 「폭력시대」라 하기도 하고 깜짝 놀랄 시대라고 하기도 한다. 참으로 격동의 시대, 분노의 시대에서 현대인들은 행동과 마음까지도 살벌하게 폭력화되고 있음을 공인하기에 이르렀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어떤 구실에서도 폭력은 죄악이며, 천리가 아니다.

여지없이 추락되고 황폐화된 도덕을 <경관 무장 정면대응>만으로써 쉽게 회복되리라 기대키는 어렵다. 그러면 오늘의 살벌한 폭력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장기적 처방이 될는지 모르지만 건전한 도덕회복과 참다운 대화의 길을 터 가는 일로 안다.

여기서 다시 지난 오랜세월 우리의 아름다운 도덕 규범 이었던 孔孟의 가르침을 새롭게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자사상의 精髓는 무엇보다도 사회질서와 가정화목을 중요시하는 점이다. 사람들은 모두 엄격한 의무를 지니고 백성은 통치자를 공경하

고 아내는 남편을, 자식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그대신 天命을 받은 통치자는 훌륭한 위정자가 아니면 안된다. 다시 孔子는 자기의 결점을 고치는 것이 백성의 첫째 의무라고 말했다.

우리는 오늘의 우리 사회와 가정의 추락된 윤리도덕과 새로운 질서를 되찾기 위해서 공맹의 말씀에 한번쯤 귀를 기울일만 하다는 생각이다.

다시 더없이 찬란한 5월을 생각한다. 이달은 「가족의 달」, 그 많은 기념일 중에서도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5월 8일 「어버이 날」이다. 도시의 핵가족 바람에 점차 자식들로부터 소외되어 悲感에 젖었던 노부모들이 모처럼의 효도에 감격할 수 있는 것도 이 날이 아닐까.

어버이하면 문득 생각나는 것이 북쪽의 수령 누구를 연상케 해서 순수하게 아름다운 호칭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실상 어버이란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칭하는 부모를 가르키는 우리의 고유한 말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어버이란 말이 낮설게 들리는 것은 웬일일까.

따지고 보면 1973년부터 「어머니 날」을 바꾸어 「어버이 날」로 제정된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오래된 역사는 아닌지 모른다. 아뭏든 「어버이 날」이 되면 이제 半白의 세대인 나도 우리집 자식들에게 카아네이션 한송이와 선물을 받는 영광이 주어졌다. 선물이라야 넥타이가 아니면 T-셔츠 몇장이 고작이었지만 예쁜 색종이에 잘 포장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흐뭇한 일이었다.

그러나 「어버이 날」이란 명절 아닌 기념일이 우리 모두에게 제각기 많은 감회를 안겨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失鄉民의 경우, 생사조차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서 카아네이션 대신 복덕을 향해서 큰절을 드리고 숙연해졌을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여기서 화제를 바꿔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꾸며가기 위해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노력도 절실하지만 흔히 일컬어지는 「보통사람」들의 삶의 참 모습을 그려 본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이렇게 찬송되는 구두회 작사의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를 실로 감동 깊게 읊게 된다. ☹